

새 언약의 행복(렘 강해 설교 26)

성경말씀: 렘31:31-40

지난 몇 번의 예레미야 강해, 롬9-11 강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계획과 회복(롬11:1, 11, 25-27)
예레미야 대언자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말세의 회복(31장)
마23:37-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눅21:24, 2600년 정도를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급작스러운 부활: 겔37:1-14, 사66:6-12

지난 번 강해: '회개와 영광의 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사66:1-2).

렘31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31절).

옛 언약(구약) 개요

옛 언약(구약): BC 1500년경에 시내 산에 주신 것, 이스라엘의 행동 지침, 마음이 아니라 행동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역사: (1) 처음의 시내 산 옛 언약. (2)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신명기
언약 갱신, (3)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수23-24), (4) 사무엘의 언약 갱신(삼상12), (5) 히스기야(대
하29-31), (6) 요아스(대하34-35), 부흥과 개혁이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함.
그런데 렘31장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의 언약이 아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새 언약의 행복>

왜 새 언약(신약)인가?

성경은 구속 사역과 축복과 저주 등에 관한 한 항상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구약과 신약(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는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더 좋다'고 말한다(히8:6).

구약과 신약 비교

1.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졌다(32). 하나님이 용서하는 남편일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
면서 언약을 깨려 하면 깨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겔20:10-13, 마19:16-17, 언약의 내용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심지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2.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잠시 죄를 가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죄, 범법, 화평 헌물, 규례,
예식, 제사장, 레위 체계, 전체가 다 불완전하다(히10:1-4).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
3. 새 언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 거절, 왕국 연기(마23), 환난기(마24-25), 예수님 처형, 부활, 승천(마
26-28), 오순절 성령 강림(행2), 교회 시대,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회심, 새 언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이다(마
26:27-28).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근거는 주지 않고 단순히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거의 무관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여신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다(히9:22).

새 언약은 더 나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에 근거한다(히8:6).

4. 새 언약의 효과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고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히8:7-13 동일 말씀).
예수님은 구약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히9:15).

구약은 그들의 사악함과 무기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데는 힘이 있으므로
사라지고 만다(히8:7, 13). 그러나 새 언약은 조건과 성취라는 면에서 완벽하여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토록 확보해 준다(롬8:3-4; 히10:11-18).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후5:17).

5. 위에서 말한 대로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죄를 잠시 가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죄, 범법, 화평 헌물, 규례, 예식, 제사장, 레위 체계, 전체가 다 불완전하다(히9:10).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성막, 헌물, 제사장, 레위 사람 섬기는 자, 제단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저저 주시는 은혜를 넘죽 받기만 하면 된다.
6.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둘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기록된다(33절, 겔 36:26-27).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내부에서 작용하여 의지를 조절하여 순종하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일을 하게 한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문제: 위선, 현 시대 성도들의 문제: 여전히 자기가 만든 율법을 지키려 한다(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교회의 각종 행사, 기도, 성경 읽기...).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야 한다(롬6:3-4). 내적인 충만함에서 외적인 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 안 하면 두려워서 하게 되면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다.
7.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34절). 이스라엘 신정 국가, 과거의 유대인들은 인간 스승들 - 대언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 에게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배웠다.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 대언이 필요 없다. 심지어 대언을 하면 죽는다(슌13:2-3).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요14:16-17, 26; 요일2:27).
8.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34절). 새 언약의 모든 복은 사실 죄들의 용서로 인한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다(롬3:20). 이게 끝이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아예 죄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의 불법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다(히8:12).

신약의 좋은 점

원래의 새 언약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주전 600년경에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교회가 먼저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롬11:11-12). 지금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기름짐에 참여하고 있다(롬11:17). 즉 롬11장의 올리브나무 비유처럼 뿌리는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거기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다. 주님께서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신약 교회의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히11:39-40). 그래서 죽어서도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에도 먼저 참여하고 새 언약에도 먼저 참여한다.

새 언약의 확증(렘31:35-37)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의 예를 사용하신다. 앞으로 영원히 이 땅과 우주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또 다른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를 둔 이 새 언약은 신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한다. 우주의 천체들을 보면서 새 언약을 기억하기 바란다. 계21:1, 5-6

결론

1. 당신은 새 언약의 상속자인가?
2. 예수님으로 인해 죄들의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3. 하나님의 아들딸인가?
4. 하늘을 쳐다보고 확신을 가져라.